

2030년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무안군·무안군의회 공동 입장문

무안군과 무안군의회는
국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이
전남 서부권의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990년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처음 건의한 이후
36년 동안 서부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행된 교육부 연구용역을 통해
의대 설립 타당성이 이미 입증되었고,
정부 지표는 서부권의 의료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조사에 따르면,
서부권 대다수 지역이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환자, 중증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이 집중된 서부권 특성상
응급환자 이송 및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남 평균보다 높고,
관외 진료인원 및 관외 진료비 역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남 서부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방치된 의료 취약지역이며,
우리 지역민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로 제때 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2030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정부가 의대 설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예산 반영 등의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무안군과 무안군의회는

정부가 국가 공공의료 정책의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2030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무안군과 무안군의회는

지역민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남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무안군수 김 산

무안군의회 의장 임윤택 외 의원 일동